

한국갤럽 Gallup Report 2018/12/12

2018년 올해를 빛낸 영화배우

한국갤럽은 2007년부터 매년 말 그해를 빛낸 각 분야 ‘올해의 인물’을 발표해 왔는데요.
올해는 이를 위해 11월 7일부터 30일까지 전국 만 13세 이상 남녀 1,700명을 면접조사했습니다.
예능방송인/코미디언, 스포츠선수에 이어 오늘은 영화배우, 이후 탤런트, 대중가수/인기가요 등
분야별 ‘2018년을 빛낸 인물’을 차례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조사 개요

1. 조사기간: 2018년 11월 7~30일(3주간)
2. 표본추출: 2단계 층화 집락 무작위 추출-표본 지점 내 성/연령별 할당
→ (참고) [한국갤럽 옴니버스 조사 표본설계 보고서](#)
3. 응답방식: 면접조사원 인터뷰
4. 조사대상: 전국(제주 제외) 만 13세 이상 남녀 1,700명
5. 표본오차: $\pm 2.4\%$ 포인트(95% 신뢰수준)
6. 응답률: 26% (총 접촉 6,416명 중 1,700명 응답 완료)
7. 의뢰처: 한국갤럽 자체 조사

주요 결과

- 2018년 올해를 빛낸 영화배우 1위: 마동석
- 하정우, 이병헌, 송강호, 주지훈 2~5위
- 남배우 상위권 절대다수 현상 지속
- 마동석·주지훈은 저연령일수록 더 인기, 하정우는 상대적으로 전 세대 고른 편

2018년 올해를 빛낸 영화배우 1위: 마동석

- 하정우, 이병헌, 송강호, 주지훈 2~5위

한국갤럽이 2018년 11월 7일부터 30일까지 전국(제주 제외)의 만 13세 이상 남녀 1,700명을 대상으로 올 한 해 가장 뛰어난 활약을 한 영화배우를 두 명까지 묻은 결과(자유응답) **마동석**이 19.9%의 지지를 얻어 1위를 차지했다.

거친 외양에 여린 속내의 반전 매력으로 ‘마블리’란 애칭으로 불리는 그는 올해 최고 흥행작 <신과 함께-인과 연>에서 오랜 시간 인간의 곁을 지켜온 가택신, ‘성주신’ 역을 맡아 코믹한 연기를 보여줬다. <신과 함께-인과 연>은 <베테랑>(2015), <신과 함께-죄와 벌>(2017, 이상 특별출연), <부산행>(2016, 주연)에 이어 그가 출연한 네 번째 천만 관객 영화다. 그 외 올해 개봉작으로 <챔피언> <원더풀 고스트> <동네 사람들> <성난 황소>가 있다. 마동석은 2016년 처음으로 올해의 배우 10위에 이름을 올렸고, 2017년 히트작 <범죄도시>에서는 괴물형사 ‘마석도’로 강렬한 인상을 남기며 2위로 급부상했다.

2위 **하정우**(18.6%)는 <신과 함께-죄와 벌> <신과 함께-인과 연>의 전체 스토리를 이끄는 저승 삼차사의 리더이자 망자를 변호하는 인물 ‘강림’ 역으로 열연했다. 2015년 <암살>이 1,270만 명, 2016년 <아가씨>(428만)와 <터널>(712만)을 합해 1,140만 명, 2017년 <신과 함께-죄와 벌>이 1,440만 명, 올해 <신과 함께-인과 연>이 현재까지 1,227만 명 등 매년 천만 이상 관객을 극장에서 만났다. 송강호와 함께 2012년부터 7년 연속 ‘올해의 영화배우’ 5위권에 들어 ‘믿고 보는’ 배우로 안착했다.

3위 **이병헌**(11.2%)은 국내외 행보를 병행하는 글로벌 스타다. 올해 초 개봉작 <그것만이 내 세상>에서 한물간 전직 복서 ‘조하’ 역으로 잔잔한 연기를 펼쳤고, 하반기에는 tvN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으로 화제를 모았다. 작년에는 <남한산성> 이조판서 ‘최명길’ 역으로, 제작년인 2016년은 <미스컨덕트> <매그니피센트7> 등 해외 활동에 주력했다. 이병헌은 2009년 <지아이조-전쟁의 서막>, 2012년 <광해, 왕이 된 남자>로 ‘올해의 영화배우’ 1위에 오른 바 있다.

4위는 **송강호**(10.9%)로, 올해 개봉작이 없음에도 4위에 올라 그를 향한 팬들의 두터운 신뢰를 짐작케 했다. 현재 밀수꾼이 전설의 마약왕으로 변신하는 이야기를 담은 <마약왕> 개봉을 앞두고 있다. 2017년에는 천만 관객을 돌파한 유일한 영화 <택시운전사>의 ‘김만섭’ 역으로 ‘올해의 영화배우’ 1위를 차지했고, <설국열차> <관상>에 출연한 2013년과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을 선보인 2008년에도 1위를 기록했다. 2016년 <밀정>에서는 의열단을 돕는 조선인 일본 경찰 ‘이정출’, 2015년 <사도>의 ‘영조’, 2014년 故 노무현 대통령 일화를 다룬 영화 <변호인>의 ‘송우석’ 역 등 매해 인상적인 인물을 연기해왔다.

5위는 올 한 해 연기에 대한 호평과 흥행, 인기를 모두 거머쥔 **주지훈**(7.3%)이다. <신과 함께-죄와 벌> <신과 함께-인과 연>에서는 천년 전 비밀을 간직한 세련되고 터프한 저승차사

‘헤원맥’, 한국형 첩보 영화 <공작>에서는 흐트러짐 없는 북한 보위부 요원 ‘정무택’, <암수살인>에서는 짧은 머리에 수척한 얼굴로 광기가 느껴지는 살인마 ‘강태오’로 연기의 폭을 넓혔다.

6위는 올해 코미디 최고 흥행작 <완벽한 타인>의 **유해진**(6.4%),

7위는 인간병기 <인랑>의 특기대 훈련소장 **정우성**(6.2%),

8위는 첩보영화 <공작>의 흑금성 역의 **황정민**(4.9%),

9위는 <안시성>의 성주 양만춘 역을 열연한 **조인성**(4.6%),

10위는 <신과 함께-죄와 벌>의 귀인 **차태현**(4.1%)이다.

그 외 조진웅(3.7%), 현빈(3.3%), 김윤석(3.1%), 김혜수, 공유(이상 2.8%),

강동원, 설경구, 손예진(이상 2.4%), 한지민(2.3%), 장동건(2.2%) 등이 20위권에 들었다.

▶ 2018년을 빛낸 영화배우 - 상위 10위 (2명까지 자유응답)

순위	이름	%	올해 대표작
1위	마동석	19.9	<신과 함께-인과 연> <챔피언> <원더폴 고스트> <성난 황소>
2위	하정우	18.6	<신과 함께-인과 연>
3위	이병헌	11.2	<그것만이 내 세상>
4위	송강호	10.9	<택시운전사>
5위	주지훈	7.3	<신과 함께-인과 연> <공작> <암수살인>
6위	유해진	6.4	<레슬러> <완벽한 타인>
7위	정우성	6.2	<인랑>
8위	황정민	4.9	<공작>
9위	조인성	4.6	<안시성>
10위	차태현	4.1	2017.12 <신과 함께-죄와 벌>

질문) 2018년 한 해 동안 가장 뛰어난 활약을 한 영화배우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남녀 구분 없이 두 명만 말씀해 주십시오. (2명까지 자유응답)

*2018년 11월 7~30일 전국(제주 제외) 만 13세 이상 1,700명 면접조사. 한국갤럽 www.gallup.co.kr

남배우 상위권 절대다수 현상 지속

남배우들이 ‘올해의 영화배우’ 상위권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2007년에는 전도연이 49.7%로 1위에 올랐고 2008년에는 손예진(2위), 김혜수(3위), 전도연(4위)이 상위권에서 각축을 벌였다.

이후 여배우 순위 최고 기록은 2009년 하지원 4위, 2010년 김혜수 7위, 2011년 김하늘 4위, 2012년 김혜수 3위, 2013년 김혜수 7위, 2014년 전지현 11위, 2015년 전지현 4위, 2016년 전지현 9위, 2017년 김혜수 12위다. 2018년 올해도 2014년, 2017년과 마찬가지로 10위 안에는 여배우가 한 명도 없고 김혜수(공동 14위), 손혜진(공동 16위), 한지민(19위)이 20위권에 드는 데 그쳤다.

▶ 올해를 빛낸 영화배우 - 최근 12년간 추이 (% , 2명까지 자유응답)

순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1위		전도연(49.7)	송강호(13.1)	이병헌(20.1)	원 빈(30.7)
2위		송강호(16.5)	손예진(11.3)	장동건(17.9)	장동건(14.4)
3위		배용준 (6.4)	김혜수 (7.4)	설경구(17.5)	강동원(11.6)
4위		안성기 (6.4)	전도연 (7.3)	하지원(14.3)	이병헌 (6.4)
5위		설경구 (5.0)	장동건 (7.3)	정지훈 (8.3)	송강호 (5.6)
순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1위	원 빈(11.3)	이병헌(37.6)	송강호(22.5)	최민식(42.3)	유아인(26.9)
2위	박해일 (9.5)	송중기(15.0)	하정우(18.9)	송강호(22.2)	송강호(20.3)
3위	장동건 (8.8)	김혜수 (7.6)	이병헌(18.0)	류승룡(10.5)	황정민(16.1)
4위	김하늘 (8.2)	장동건 (7.4)	류승룡(10.1)	하정우 (9.0)	전지현(14.2)
5위	공 유 (5.8)	하정우 (6.4)	설경구 (7.4)	이병헌 (4.5)	하정우(11.8)
순위	2016년	2017년	2018년		
1위	황정민(21.2)	송강호(35.0)	마동석(19.9)		
2위	송강호(18.4)	마동석(17.8)	하정우(18.6)		
3위	공 유(12.7)	이병헌(12.6)	이병헌(11.2)		
4위	하정우(11.4)	황정민(8.1)	송강호(10.9)		
5위	유해진(10.8)	하정우, 설경구(6.3)	주지훈 (7.3)		

*매년 말 전국(제주 제외) 만 13세 이상 1,700명 면접조사. 한국갤럽 www.gallup.co.kr

마동석·주지훈은 저연령일수록 더 인기, 하정우는 상대적으로 전 세대 고른 편

연령별로 보면 마동석과 주지훈은 저연령일수록 더 인기가 높았고,
하정우는 상대적으로 전 세대 고른 편이다.

▶ 2018년을 빛낸 영화배우 - 성/연령별 (% , 상위 10위, 2명까지 자유응답)

	표본수 (명)	(1위) 마동석	(2위) 하정우	(3위) 이병헌	(4위) 송강호	(5위) 주지훈	(6위) 유해진	(7위) 정우성	(8위) 황정민	(9위) 조인성	(10위) 차태현
전체	1,700	19.9	18.6	11.2	10.9	7.3	6.4	6.2	4.9	4.6	4.1
성 남	845	22	18	12	13	6	8	7	6	3	3
별 여	855	18	19	10	9	9	5	5	4	5	5
연 13~18세	117	<u>33</u>	21	9	8	<u>14</u>	4	2	6	5	5
령 19~29세	275	25	22	9	9	11	6	6	4	4	4
별 30대	270	23	20	11	11	8	9	7	7	4	4
40대	317	18	20	12	11	7	7	8	5	3	3
50대	317	15	19	<u>14</u>	15	7	5	6	4	3	3
60대이상	404	15	13	11	10	3	5	6	4	5	5
남 13~18세	61	36	18	8	10	12	7	3	10	1	5
19~29세	145	26	21	10	8	7	7	8	3	7	4
30대	138	28	17	13	14	8	9	6	9	3	4
40대	161	18	18	12	14	5	7	9	6	7	2
50대	160	17	20	15	<u>18</u>	5	7	8	4	2	4
60대이상	181	19	13	11	10	3	8	5	6	5	3
여 13~18세	56	30	23	10	7	17	2	1	2	1	5
19~29세	130	25	24	8	9	15	5	4	5	6	3
30대	132	18	23	8	8	8	8	7	5	3	5
40대	156	19	22	12	9	10	8	6	3	7	4
50대	157	13	17	13	11	9	3	5	5	6	3
60대이상	223	12	13	10	9	3	3	7	3	4	8

문) 2018년 한 해 동안 가장 뛰어난 활약을 한 영화배우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남녀 구분 없이 두 명만 말씀해 주십시오. (2명까지 자유응답)

*2018년 11월 7~30일 전국(제주 제외) 만 13세 이상 1,700명 면접조사. 한국갤럽 www.gallup.co.kr